

폭염 장기화, 중대본 대응 상황 점검회의 개최

- 폭염 중대본 2단계 가동, 범정부 대응 추진상황 점검
-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안전관리 중심으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는 8월 3일(월) 16시 김광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이중 영향으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폭염 중대본 2단계 가동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대응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서는 전국적 폭염특보 확대에 따라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여 현장의 대응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먼저 국민이 폭염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 재난문자, 전광판 및 마을방송 등 가용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국민들에게 폭염 상황과 국민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취약노인, 쪽방 주민, 노숙인 등에 대한 세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무더위쉼터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 후 미비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했다.

특히 폭염특보와 열대야가 지속되는 지역은 무더위쉼터 운영시간을 적극 연장해 국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야외작업장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건설현장과 물류센터 등에서 작업 조정과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이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농업인의 무리한 야외활동 자제를 적극 안내하고, 이·통장과 지역 자율방재단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예찰활동도 확대하도록 했다.

축산·양식시설에도 폭염 피해 예방과 고수온 대응을 위한 예방물품 보급

과 대응장비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폭염 장기화로 인해 도로 솟음과 철도 레일 변형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광용 차장은 "중대본 2단계를 가동 중인 엄중한 상황인 만큼 관계기관은 최고 수준의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인명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폭염은 단순한 무더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인 만큼, 정부는 중앙과 지방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현장을 중심으로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진희 (044-205-6360)
		담당자	시설사무관	조호명 (044-205-6364)



폭염 6대 행동요령



본격적인 무더위
● 폭염특보 33℃

무더위 기상상황 확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야외활동시 신체노출 최소화

***실내온도 26~28 유지**

시원한 장소 휴식

충분한 수분섭취

가족 또는 이웃의 안전 살피기

